

이상돈의 '바른 소리'



야권 분열과 4·29 재보선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제3 후보의 등장이다. 이로 인해 한쪽 진영이 분열된다면 다른 쪽 후보가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게 되는데 그런 결과로 역사의 물결이 바뀌기도 한다. 가장 유명한 예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경우다. 노예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후보 스티븐 더글라스에 반기를 들고 노예는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존 브래클리지가 남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데다, 노예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한 한법연합의 존 벨이 출마한 4파전 끝에 링컨은 일반투표의 39.7%를 얻는데 그쳤지만 선거인단 선거에 낙승했다.

거기서 파생된 통진당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정의당 등 작은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등 분열돼 있다. 야권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연대라는 틀 안에서 치른 것도 분열로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진당의 실제 나중에도 드러나므로써 야권 연대는 당시 민주통합당에 큰 오점을 남겼다. 다가오는 4·29 재보선에서도 야권 분열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천정배 전 의원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및 새누리당 후보와 겨루는 광주 서구 을의 경우, 주된 게임은 야권 후보들끼리 각축이지만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모임 후보로 출마하는 서울 관악을과 역시 구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이 출마하는 성남 증원은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 돌이켜 보면 야권은 선거를 앞두고 항상 단일화라는 또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여당 후보는 이미 링 위에서 몸을 풀고 있는데 야권 후보는 링 밖에서 누가 링 위에 올라가느냐를 두고 난타전을 벌이는 꼴이었다. 지난 해 세월호 여파 속에서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도 야권이 승리하지 못

고 새누리당이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안철수 신당의 등장으로 인한 야권 분열과 뒤이어는 합당으로 야권이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선거에 임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 뒤이어 치러진 7·30 재보선에서 야권이 패배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무리한 전략공천이지만 그 못지않게 야권 분열도 큰 역할을 했다. 서울 동작을에서 벌어졌던 소동과 노회찬 전 의원으로의 뒤늦은 단일화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승리한 것이다. 야권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는 통진당으로 인해 그 자체가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 가능성을 일축하고 선거에 임하는 문재인 대표의 행보는 전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야권 분열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야권 후보가 고배를 마신다면 야당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에 봉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관악을 선거에서 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를 접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편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번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패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야권 분열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

패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야권의 위기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로 선거 전 분열에 대한 학습효과를 유권자들에게 심어주지 않을까 한다. 이번에 구 통진당 인사들이 무소속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들의 마지막 잔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은 통진당 없이 치러지는 총선이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새누리당 의원들은 통진당 해산이 다음 총선에 있어 그들에게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에 나가는 여당 후보에게 수 천 표에서 많게는 1만 표를 잡았해 가는 통진당 후보만큼 꼬마은 존재가 없었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선거구를 옮겨 가면서 출마하는, 이름까나 있는 정치인들에 식상한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어느 때보다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중앙대 명예교수>

종교칼럼



김성덕 회장교회 담임목사

세월을 아껴라

마음씨 고운 재투성이 아가씨를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하고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자가 신발감을 찾기 위해 무도회를 열고 젊은 여자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화려하게 차장을 하고 무도회에 가지만, 신데렐라는 세 모녀가 시킨 집안일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나도 무도회에 가고 싶다'고 혼잣말을 하며 절망 속에서 울고 있을 때, 한 요정이 나타나 요술봉을 휘두르자 호박은 황금 마차로, 생쥐들은 말로, 큰 쥐는 마부로 변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신데렐라가 입은 누더기 옷은 공주가 입을 법한 아름다운 드레스로 변했고, 유리로 만든 구두도 신데렐라를 반신사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정은 '자정이 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집니다. 무도회에 참석하던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춤을 추던 중 12시가 되어 급히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한쪽 유리구두를 잃어버립니다. 왕자님과 다음에 만날 약속도 정하지 못했는데, 시계 바늘은 무심하게도 자

정을 향해 달려갔던 겁니다.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말은 쥐로, 마차는 호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 안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신데렐라에게 주어진 기적도 시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른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시간이고, 시간을 당해낼 존재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건강도 사라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인간의 수명도 줄어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인기도, 명예도 사라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조차도 쓰지 못할 때가 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1월에 무엇을 하고, 2월과 3월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계획표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4월을 맞이했습니다. 순간 시간이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데렐라의 기적이 정해진 시간 안에 있었다면, 우리 인생도 정해진 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교제하고 여행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

기고

기초질서가 '7월 광주'를 빛낸다



송광운 광주시 북구청장

광주로서는 브랜드를 높이고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북구 역시 광주의 관문으로, 외지인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심어줌으로써 도시의 품격과 민중·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현재 지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마음과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일상에 조그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며 실천해나가기 바란다. 기초질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지탱해주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이는 또 삶의 질 제고로도 이어진다. 북구는 이미 올해 초부터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 운동계획'을 마련, 추진 중이다. 우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주민 맞춤형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 배출과 처리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을 견학하도록 하고 있다. 또 쓰레기 몸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무단투기지역 취약시간대 근무와 공한지 등을 확대이나 텃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특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정비와 일명 '청개구리'(청결하고 깨끗하게 구민이 함께 이해하고 참여합니다) 운동을 통해 청소소에 대한 주의 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북구는 하계U 대회 지원 준비에 지역 27개 전 동(洞)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결·질서·친절을 모토로 1동 1지원 시책을 마련, 광주시의 기초질서 홍보 캠페인과 연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북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순님맞이 준비일 지정·운영 및 숙박업소 잠

무도 ▲상사 사업주 기초질서 교육 및 무단투기 사전 전시회 ▲SNS 등 미디어를 활용한 주요경기 일정 등 안내 ▲기초질서 지키기 남녀노소 정비단 운영 ▲Clean 자연이 숨 쉬는 역사마을 조성 등이다. 광주시도 지난 3월 25일 하계U 대회 개막 100일을 맞아 시청 광장에서 전국 9개 도시를 돌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전국 순회 홍보단 출정식을 가졌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작은 냇물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룬다고 말이 있다. 활동하기 좋은 이 봄날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교통질서 지키기 등 일상 속 작지만 소중한 기초질서 준수로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도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계U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주춧돌도 차근차근 쌓아보자. 자신하건대, '7월의 광주 얼굴'을 빛나게 하는 청병 역할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정부, 호남선 2단계 건설 소탐대실할 건가

호남고속철도(KTX) 광주 송정~서울 용산 구간이 2일 개통된 가운데 이어지는 2단계 사업(송정~목포)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전남도는 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노선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송정~나주~목포를 연결하고, 무안공항은 항평에서 지선화 해 운영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와 전남도는 송정~목포 구간 중 43.9km는 신선(新線)으로, 33.7km는 기존선을 활용하자는 데 반해 기재부는 송정~나주~목포 구간은 기존선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업비는 국토부·전남도 안으로 할 경우 2조4731억 원, 기재부 안은 1조3427억 원이 소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 기존선을 활용하자는 것이며 절감되는 1조1000여억 원의 예산을 전남의 다른 현안 위해 쓰겠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기존선을 이

'자전거 타기 좋은 광주' 구호에만 그쳐서야

광주는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거꾸로 광주는 '자전거 타기 불편한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자전거도로 곳곳이 움푹 파이고 표시판은 식별조차 어려운가 하면 장애물로 인해 통행을 아예 할 수 없는 지역도 많다. 그런데도 정비는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광주시도에 따르면 전체 자전거도로 683.83km 가운데 38.6%인 264km가 시급히 정비·보수해야 할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소요 비용이 238억 원에 달하지만 시는 2013년부터 '짚금 예산'을 배정해오다 올해는 7억 원만 편성했다. 정비할 수 있는 구간이 겨우 13km뿐으로 시용만 내고 말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이 정도라면 광주시가 쾌적한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 KTX와 연계해 외지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앙림동 역사마을 등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無等鼓 아트마켓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 (Gwangju City) and The Kwangju Ilbo (광주일보).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